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Baby Boom Generation's Preparation for Old Age

유용식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ng-Shik Yoo(yoos@semyung.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준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월평균소득이 그리고 노후태도, 노후불안이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노후태도가 높을수록, 노후불안이 낮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세대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노후태도를 높일 수 있는 의식변화와 단계별 노후생활 준비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노후불안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 **중심어** : | 베이비붐 세대 | 노후준비도 | 노후불안 | 노후태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baby boom generation's preparation for old age, and based on that, it will provide foundational data to improve the baby boom generation's preparation for life in old age.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with regard to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ir sex, age, health conditions, average monthly income, attitudes to old age, and anxiety about aging ma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preparation for old age. In other words,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age is higher in women than men, those who are older, those having better health conditions, those with higher average monthly income, and those with better attitudes to old age, and those whose anxiety about aging is lower. Based on the above study results, the paper intends to make the following political suggestions: first, it is needed to develop preparation for old age services appropriately for each generation's needs and characteristics in consideration of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for preparation for life in old age by steps and change their consciousness to enhance their attitudes to old age. Third, it is needed to develop and distribute a variety of mental health programs that can lower their anxiety about aging.

■ **keyword** : | Baby Boom Generation's | Preparation for Old Age | Anxiety about Aging | Attitudes to Old Age |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접수일자 : 2013년 08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9월 26일

수정일자 : 2013년 09월 11일

교신저자 : 유용식, e-mail : yoos@semyung.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베이비붐 세대는 6.25전쟁 이후 출산장려정책에 의해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일컬으며, 2013년 현재 50세-58세 연령에 해당되는 745만명으로[1] 50대 장년층 대부분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2010년부터 정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노후준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가난을 경험해 본 세대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고, 부모모양에 애쓰는 한편, 교육열 또한 높아 자녀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옴에 따라 가족과 사회를 위해 희생한 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끼인 세대’ 또는 ‘샌드위치 세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들은 장남이 당연히 은퇴한 노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효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부모 부양의 책임을 다하여 왔지만, 그들 자신은 자식 세대로부터 그러한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2]. 결국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을 맞이하게 되었고, 노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국가의 정책적 지원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은 노동 생산성 및 기업 경쟁력의 저하, 세대 간 조세부담 문제, 주택경기의 침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3]. 또한 이들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 은퇴 후에도 약 30년 이상의 오랜 노년생활을 해야 하므로 이전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노후준비를 필요로 한다[4].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사회가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기회와 위기의 양날을 동시에 지닌 집단으로 이들의 은퇴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베이비붐 세대라는 큰 인구집단이 갖게 될 은퇴 이후 노후생활은 우리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대비는 아직 충분치 못하다[5].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안전

망이 미흡한 상황에서 퇴직을 맞으며, 불안정한 근로상황에서 노후준비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은퇴와 경제적인 측면, 건강과 서비스 등 개인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5-11], 사회의 우려 속에 거론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노후태도나 노후불안 변수와 노후준비도와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령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준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베이비붐 세대의 개념

베이비붐(baby boom)의 사전적인 정의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늘어 출생아수가 폭등하는 상황을 의미하며[1], 베이비붐 세대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연령으로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74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8%를 차지한다[1].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몸소 체험한 세대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아동기를 보냈고, 청소년기에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지켜보았으며, 6.25 한국전쟁을 겪었다. 노부모세대는 협동과 조화가 중요한 전통적인 농경시대에 보릿고개를 경험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청년기에 4.19혁명과 같은 정치적 격변과 월남전 파병 등으로 혼란시기를 보냈으며, 성인기에는 국가차원의 대규모 경제개발계획의 진행으로 농경사회에서 공업화 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한 세대이다[12].

또한, 1990년 후반 IMF를 겪으며 실직 등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 세대이다. 이처럼, 가치관의 전환기에 있는 긴 세대로서 은퇴 후 여명이 짧아 노

후준비에 부담이 적었던 부모 세대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자녀세대 사이에서 부모부양과 자녀 양육 모두를 책임지고 있는 전환기적 '깁세대'로 수직적 우세함을 비롯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13].

2. 베이비붐 세대의 연구동향

베이비붐 세대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은퇴로 인한 경제적인 측면과 건강과 서비스 등 개인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미혜[5]는 경제적 측면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중·하류층은 노후보장 급여에 의존하는 반면, 중·상류층은 노후에도 자신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퇴직준비에 보다 적극적이라고 하였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노후준비에 적극적인 이유는 퇴직준비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대기업의 퇴직준비 프로그램의 급증과 고령노동자의 참여율이 높은 추세가 이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박창제[6]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베이비붐 세대 비율이 상당히 높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비율은 높다고 밝히고 있다. 정호성 외[7]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 자산시장, 국가재정에 미치는 과잉효과에 대해, 자산 구성 중 실물자산 구성이 76.8%로 높다는 것, 금융자산은 전체 보유 자산의 16.3%에 불과하며 금융자산 보유구조는 대부분 안전자산 위주로 타 연령대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석재은·이기주[8]는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상태별 다층연금체계 준비수준을 살펴본 결과 무연금인 경우가 전체의 56.7%였고 취업자 중 45.2%, 비취업자의 79.2%가 무연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성균[9]은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상태 혹은 노동능력의 저하요인은 연령 뿐만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업무성격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준[10]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물질적 복리와 사회적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이소정[11]은 베이비붐 세대의 사전예방적인 고령사회 정책 수립을 위

해 미리노후를 대비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설계 서비스가 제도화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커리어개발시스템 도입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3.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후준비도는 퇴직준비와 흔히 혼용되고 있지만 퇴직준비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변화에만 초점을 둔다면, 노후준비는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노후에 대한 생물학적 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14].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도를 앞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에서 직면할 문제에 대한 준비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3.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후준비도

성별은 남성이 전반적으로 노후준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15-18]와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준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19]도 있어 성별의 영향력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은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20][21]와 젊은 층에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22]도 있어, 연령의 영향력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은 대체적으로 고학력자의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16-18]. 배우자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났[22][23].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났[17][24]. 월평균 수입을 나타내는 요인은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나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6][19][23][25].

3.2 노후태도와 노후준비도

노후태도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 즉, 경제, 역할상실, 질병, 주택, 여가활동, 재취업 등에 대한 태도(의식)를 포함한다[26]. 본 연구에서는 노후태도를 노후생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적 태도 또는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Ferraro[27]는 코호트의 크기와 계층적 지위가 전 생애에 걸친 재정, 가족기능, 정신건강 등이 노후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중산층이 퇴직준비를 하

지 않으므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 했다. 유인순·최수일[28]은 노후태도에서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경제적 불안정, 외향성, 개발성, 성실성 등의 노후태도가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관영[29]은 노후태도에서 노후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른 노후준비도는 자녀가 원하면 동거하겠다는 베이비붐 세대의 신체적 준비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 부양책임별 노후준비도는 경제적·신체적·정서적·일상생활서비스 부양 등 부양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3.3 노후불안과 노후준비도

노후불안은 신체적 건강이나 경제에 대한 불안 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힘의 상실에 대한 차원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4가지 차원(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초월영성적 차원)과 3가지 유형(노후과정에 대한 두려움, 개인적 편견에서 비롯되는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지각을 포함한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구분하고 있다[30]. 본 연구에서는 노후불안을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나 두려움이 복합된 개념[31]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노후불안은 노후태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추후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32].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현재 노후불안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8.4%였으며,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4.6%로 많은 장년층들이 노후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노후불안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3].

노후불안과 노후준비도는 자신의 건강, 노후 무료함과 외로움, 경제적 문제, 부부사별, 가족 간의 갈등문제, 주거문제에 대하여 전혀 염려하지 않는 경우가 자장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었으며, 불안해하는 경우 오히려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29]. 노후과정의 실제적·경험적 지식에 따라 노후불안이 감소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힘든 일과 사건의 정도에 따라 노후불안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노후불안은 노후준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0].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해 충청북도 내 직장인 중에서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로 본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허락한 응답자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6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8주간 실시하였으며, 총 350부를 조사하였으나 부실 기재된 27부를 제외한 32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자기기입식(self-report)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 중 임의표집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에 대한 협조요청이나 협조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허락한 대상자에게 본 연구자 및 교육받은 7명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측정도구

2.1 종속변수

노후준비도 척도는 김양이·이채우[19]와 강유진[20]이 사용한 문항을 일부 재구성하여 총 34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의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823으로 나타났다.

2.2 독립변수

2.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가족구성, 건강상태, 월평균소득 등을 살펴보았다.

2.2.2 노후태도

노후태도 척도는 양순미·홍숙자[34]가 사용한 7문항 척도에서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3문항(퇴직시기, 노후준비시기, 준비대상)을 추가하여 총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1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의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노후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780으로 나타났다.

2.2.3 노후불안

노후불안 척도는 Lasher & Faulkender[30]의 Anxiety about Aging Sxale(AAS) 20문항 중 신체적 노후불안에 대한 비중이 높아 3문항(젊게 보이기 위한 노력, 흰머리가 생기는 것, 늙은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총 17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의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79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를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평균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후태도 및 노후불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분석,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노후준비도와외의 관련성과 다중회귀분석의 전제조건으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개별변수의 영향력과 함께 노후준비도와 관련된 영향변인들을 변수 군으로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모델의 적합도 변화와 설명력의 변화, 변수의 영향력 변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20.0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148명(45.8%), 여성이 115명(54.2%)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연령

은, 55세 이하가 161명(4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세이하 이하 79명(24.5%), 50대 이하가 77명(23.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52.70세(SD=5.654)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23)

	구 분	사례수	%
성별	남자	148	45.8
	여자	175	54.2
연령	50세이하	77	23.8
	55세이하	161	49.8
	60세이하	79	24.5
	64세이하	6	1.9
가족구성	혼자산다	23	7.1
	부부	53	16.4
	부부+자녀	208	64.4
	부부+자녀+손자녀	4	1.2
	부모+부부+자녀	25	7.7
건강상태	기타	10	3.1
	매우나쁨	3	0.9
	나쁨	13	4.0
	보통	156	48.3
	좋음	116	35.9
	매우좋음	35	10.8
월평균소득	100만원이하	43	13.3
	200만원이하	71	22.0
	300만원이하	88	27.2
	400만원이하	57	17.6
	500만원이하	45	13.9
	500만원이상	19	5.9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가 208명(6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세대가 53명(16.4%), 부모·부부·자녀가 25명(7.7%), 혼자산다가 23명(7.1%)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이 156명(4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좋음 116명(35.9%), 매우좋음 35명(10.8%), 나쁨 13명(4.0%), 매우나쁨 3명(0.9%)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300만원 이하가 88명(2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이하 71명(22.0%), 400만원이하 57명(17.6%), 500만원이하 45명(13.9%) 순으로 나타났다.

2.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 노후준비도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각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

해보았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이 최종결과 변수인 노후불안의 경우는 건강상태($r=-.380, p<.001$)와 가장 큰 부적관계를 보였으며, 성별($r=-.134, p<.05$)과 월평균소득($r=-.095, p<.05$) 또한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연령, 배우자유무, 노후태도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후태도의 경우는 배우자유무($r=.096, p<.05$)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성별, 연령, 건강상태, 월평균소득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월평균소득은 배우자유무($r=-.247, p<.001$)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성별($r=-.183, p<.01$)과는 유의미한 부적관계, 건강상태($r=.127, p<.05$)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연령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우자유무의 경우는 성별($r=-.146, p<.01$)과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노후준비도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변수	더미 성별	연령	더미 배우자유무	건강 상태	월평균 소득	노후 태도	노후 불안
더미 성별	1						
연령	-.057	1					
더미 배우자유무	-.146**	-.058	1				
건강 상태	-.060	-.016	.067	1			
월평균 소득	-.183**	-.034	.247***	.127*	1		
노후 태도	.057	.047	.096*	-.001	.064	1	
노후 불안	-.134*	.007	-.013	-.380***	-.095*	-.023	1

* $p<.05$, ** $p<.01$, *** $p<.001$

2.2 노후준비도 영향요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다중공선성 통계량인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

계에서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변수 간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380$ 로 나타났고, 모든 변수에서 공차한계는 $.10$ 보다 높게 관찰되었으며, 분산팽창요인도 최대치가 1.212 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분석 모형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후태도, 노후불안으로 변수를 구분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면서 각 단계별 모형 전체의 설명력 변화와 변수추가에 따른 추가적인 설명력 변화 정도 및 그 유의미성, 추가되어지는 변수의 유의미성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노후준비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1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2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노후태도, 3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노후태도와 노후불안을 투입하여 이전 단계의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변수가 새로 투입되면서 나타나는 모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1단계 모형을 보면, 모형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0.710, p<.001$), 노후준비도 전체 변량의 약 14.5%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145$). 1단계 모형에 투입된 변수 중 성별($t=3.974, p<.001$), 연령($t=3.139, p<.01$), 건강상태($t=-4.443, p<.001$), 월평균소득($t=3.402,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유무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별, 연령, 건강상태, 월평균소득의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건강상태($\beta=.233$), 성별($\beta=.212$), 월평균소득($\beta=.186$), 연령($\beta=-.164$) 순으로 나타났다.

1단계 모형에 노후태도를 투입한 2단계 모형은 모형 전체로써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9.891, p<.001$), 노후준비도 전체 변량의 약 15.8% 를 설명하고 있다($R^2=.158$). 1단계 모형에 노후태도를 투입한 2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된 후에도 새로 투입된 노후태도를 통해 노후준비도의 변량 중 약 10.4% 를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 \text{ Change}=7.105, p<.001, R^2 \text{ Change}=.104$). 2단

계 모형에서는 1단계 모형에서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성별($t=3.797, p<.001$), 연령($t=3.019, p<.01$), 건강상태($t=-4.493, p<.001$), 월평균소득($t=3.292, p<.01$)과 새로 투입된 노후태도($t=2.259, p<.05$)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 유무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노후태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변수 간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건강상태($\beta=.234$), 성별($\beta=.202$), 월평균소득($\beta=.179$), 연령($\beta=.157$), 노후태도($\beta=.118$)의 순으로 노후준비도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모형에서는 2단계 모형에 노후불안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 모형은 모형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고($F=17.055, p<.001$), 노후준비도 전체 변량의 약 27.5%를 설명하고 있다($R^2=.275$). 노후불안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3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후태도, 노후불안을 통제한 후에도 노후준비도 전체 변량의 약 11.7%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text{ Change}=50.704, p<.001, R^2 \text{ Change}=.117$). 3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서는 성별($t=2.743, p<.01$), 연령($t=3.164, p<.01$), 건강상태($t=-1.733, p<.05$), 월평균소득($t=2.937, p<.01$), 노후태도($t=2.365, p<.05$)와 새로 투입된 노후불안($t=-7.121, p<.001$)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2단계와 똑 같이 배우자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노후태도가 높을수록, 노후불안이 낮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수 간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노후불안($\beta=-.376$), 연령($\beta=.153$), 월평균소득($\beta=.149$), 성별($\beta=.138$), 노후태도($\beta=.115$), 건강상태($\beta=.091$)의 순으로 노후준비도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노후준비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변수(군)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t	B	β	t	B	β	t	
인구 사회학적 특성	다미성별	.169	.212	3.974***	.161	.202	3.797***	.110	.138	2.743**
	연령	.012	.164	3.139**	.011	.157	3.019**	.011	.153	3.164**
	다미배우자유무	.014	.011	.203	-.001	-.001	-.012	.003	.002	.039
	건강상태	.119	.233	4.443***	.120	.234	4.493***	.046	.091	1.733*
	월평균소득	.000	.186	3.402**	.000	.179	3.292**	.000	.149	2.937**
노후태도				.145	.118	2.259*	.141	.115	2.365*	
노후불안							-.317	-.376	-7.121***	
F Change	10.710***			7.105***			50.704***			
F	10.710***			9.891***			17.055***			
R2 Change	.145			.104			.117			
R2	.145			.158			.275			

*p<.05, **p<.01, ***p<.001
*다미변수의 기본값은 다미성별 남자=0, 다미배우자유무 무=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준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건강상태, 월평균소득이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남자보다는 여자가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양이·이체우[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강유진[20], 홍성희·곽인숙[21]의 연구와 일치한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선형·최은희[17]와 김백수·이정화[24]의 연구와 일치한다.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박창제[6], 김양이·이체우[19], 김주성·최수일[23], 배문조·전귀연[2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후태도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생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적 태도가 노후준비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세 번째 모델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후태도를 통제 한 상태에서 노후불안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 한 상태에서 노후불안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노후불안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삶의 방식이나 기회를 선택하는 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후태도를 높이고, 노후불안을 낮출수록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정도는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 정도가 다르고 욕구도 차이가 있으므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문화적 공유하고 있는 세대별로 세분화하여 대상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태도를 높일 수 있는 의식변화와 단계별 노후생활 준비교육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 스스로 노후에 발생되어질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건강하고 젊었을 때 적극적인 태도로 준비해야겠다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노후생활 준비교육은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만 시작할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각 단계별로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노후준비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불안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정책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불안이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후불안감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질 높은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또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기존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했던 노후태도 및 노후불안의 변인들도 범주화하여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 또한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 한 후에도 노후태도 및 노후불안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은 기존 연구와는 다른 본 연구의 차별성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인들의 변화나 차이의 양상을 분석 할 수 없었다는 점과 노후준비도와 노후불안은 쌍방의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노후준비가 덜 되어 있을수록 노후불안이 높아진다는 논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또한 충청북도내의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베이비붐 세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참고 문헌

- [1] 통계청, 2013년 장래인구추계, 2013.
- [2] 나일주, 임찬영, 박소화,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비를 위한 정책방향", 노인복지연구, 제42권, pp.151-174, 2008.
- [3] 한국경영자총협회, 숫자로 본 경제: 베이비붐 세대 712만 명, 월간 경영, 제372권, p.36, 2010.
- [4] 김미혜, 문정화, 신은경, "베이비부머의 부부관계 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7권, 제3호, pp.211-239, 2012.
- [5] 김미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준비교육의 방향",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한·일 대응방안, 교보생명·한국노인인력개발원, pp.87-111, 2010.
- [6] 박창제,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대비한 사적재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4호, pp.327-351, 2011.

- [7] 정호성,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 [8] 석재은, 이기주,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특성별 유형화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략*,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pp.25-74, 2010.
- [9] 이성균,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과 노동능력*, 한국노동연구원, 2010.
- [10] 한준,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자산과 사회적 자본*, 한국노동연구원, 2010.
- [11] 이소정,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설계 지원서비스의 방향*, 보건사회연구원, 2011.
- [12]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효식, “청소년, 성인, 노인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제5권, 제1호, pp.119-145, 2000.
- [13] 박현식,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후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8호, pp.281-302, 2012.
- [14] 김수현, *직장인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5] 박창제,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3호, pp.275-297, 2008.
- [16] 조추용, 송미영, 이근선,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제43호, pp.135-156, 2009.
- [17] 이선형, 최은희, “안정적 노후준비 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경영학회지, 제14권, 제4호, pp.193-194, 2010.
- [18] 이용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53-261, 2013.
- [19] 김양이, 이체우,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19권, pp.55-82, 2008.
- [20] 강유진,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30, 40, 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4호, pp.159-174, 2005.
- [21] 홍성희, 박인숙,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경제적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pp.193-207, 2006.
- [22] 황승일, *초기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3] 김주성, 최수일,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제15권, 제3호, pp.97-119, 2010.
- [24] 김백수, 이정화, “중년층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분석: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1권, 제3호, pp.411-425, 2010.
- [25] 배문조, 전귀연,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7호, pp.89-102, 2004.
- [26] 배옥현, 김태선, 홍상욱, “노후생활의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자원문제연구, 제11호, pp.147-162, 1992.
- [27] K. F. Ferraro, “Cohort Analysis of Retirement Preparation 1974-1981,”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45, No.1, pp.21-31, 1990.
- [28] 유인순, 최수일,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245-262, 2012.
- [29] 박관영,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인식 수준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0] K. P. Lasher and P. J. Faulkender,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Vol.37, No.4, pp.247-259, 1993.
- [31] S. M. Nynch,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Vol.22, No.5, pp.533-558, 2000.
- [32] L. A. Harris and S. M. Clancy Dollinger,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and

anxiety about ag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4, pp.187-194, 2003.

- [33]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06.
- [34] 양순미, 홍숙자,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제6호, 2002.

저 자 소 개

유 용 식(Yong-Shik Yoo)

정회원



- 2003년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7년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다문화복지